

인구와 정주 체계

인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이다. 한 나라나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의 분포, 구조, 이동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인구 분포는 특정 시점의 인구의 지역별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인구 구조는 연령, 성, 소득, 가구 구성 등 특성별 인구 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끝으로 인구 이동은 특정 시기 동안의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을 말한다. 인구 분포의 변화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이동

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합계 출산율과 사망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인구 이동은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즉, 그러한 요인들은 지역별로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인구 이동이라는 사회 공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 이동에는 전입과 전출의 국내 이동과 이주의 국제 이동으로 구분되며, 국내 이동은 다시 도농 간, 도시 간, 농촌

간 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구 이동에는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묘도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서는 인구의 과밀·과소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분포 패턴에서 인구의 전체적인 성장·감소와 지역별 성장·감소 현상이 분명히 확인된다. 결국 인구 분포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인 것이다. 또한 인구 중심점은 거주 인구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인구 중심점의 이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 분포의 특성을 나타낸다. 1966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은 대체로 북쪽으로, 특히 최근에는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분포에서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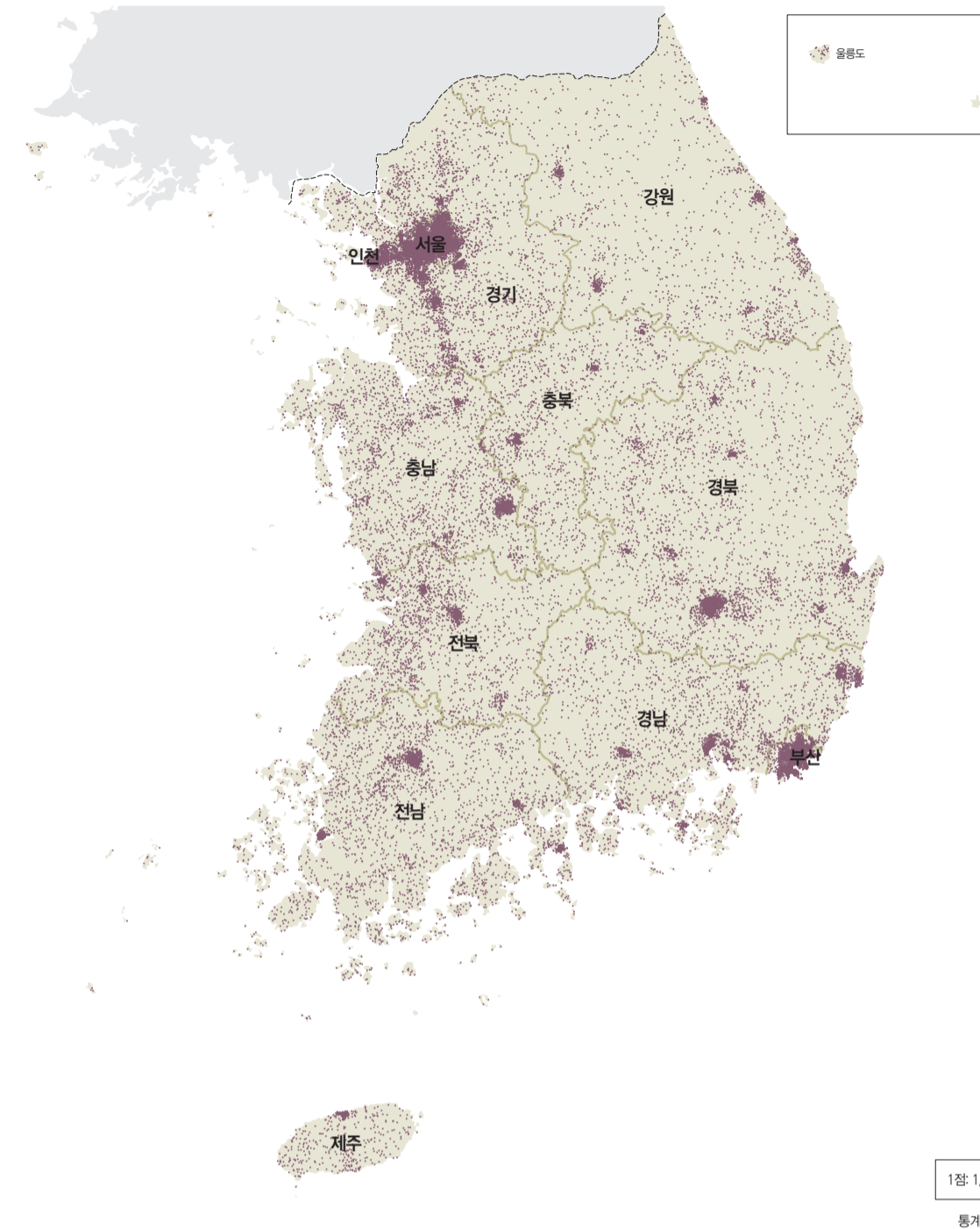
농촌 지역

인구 중심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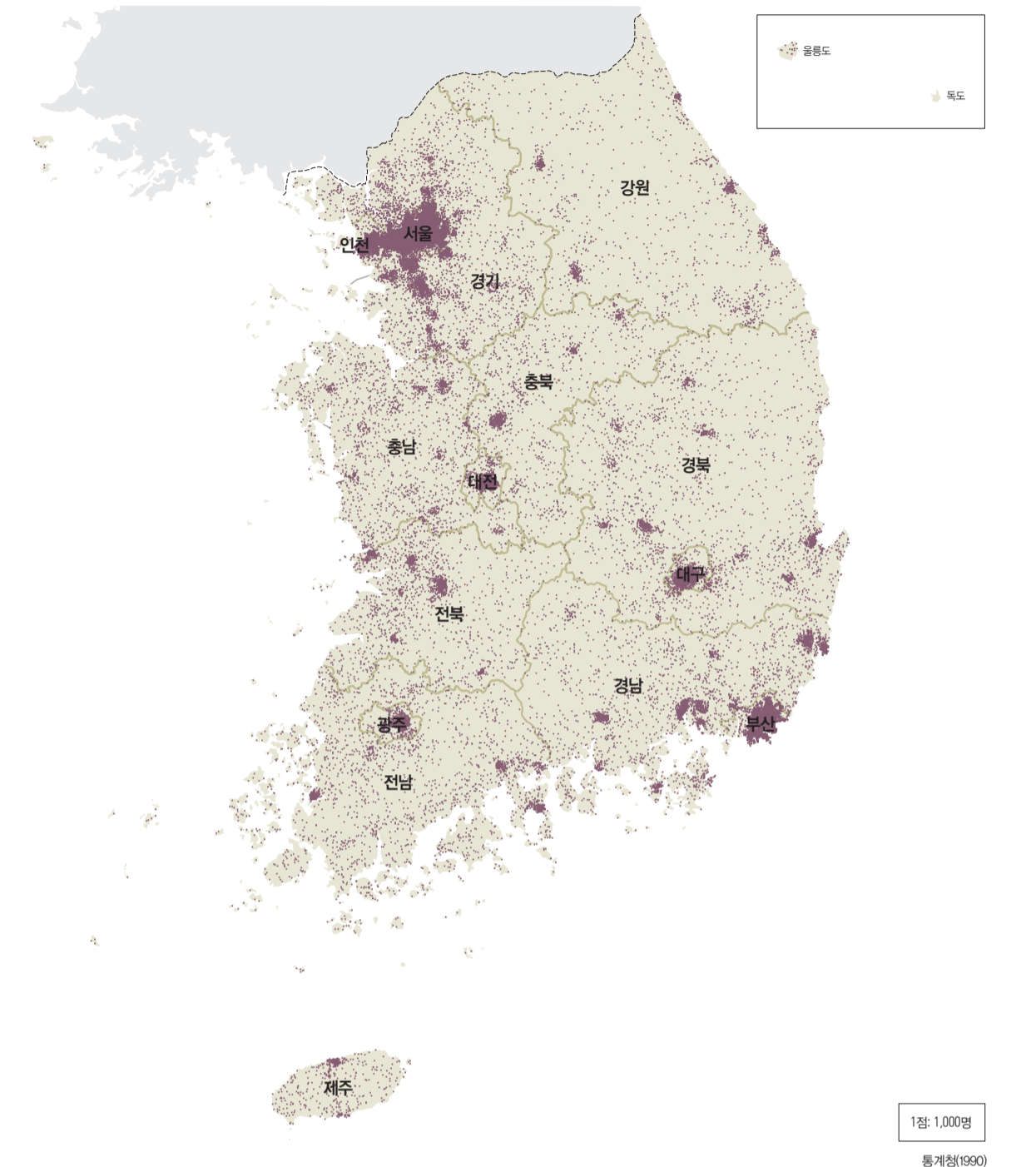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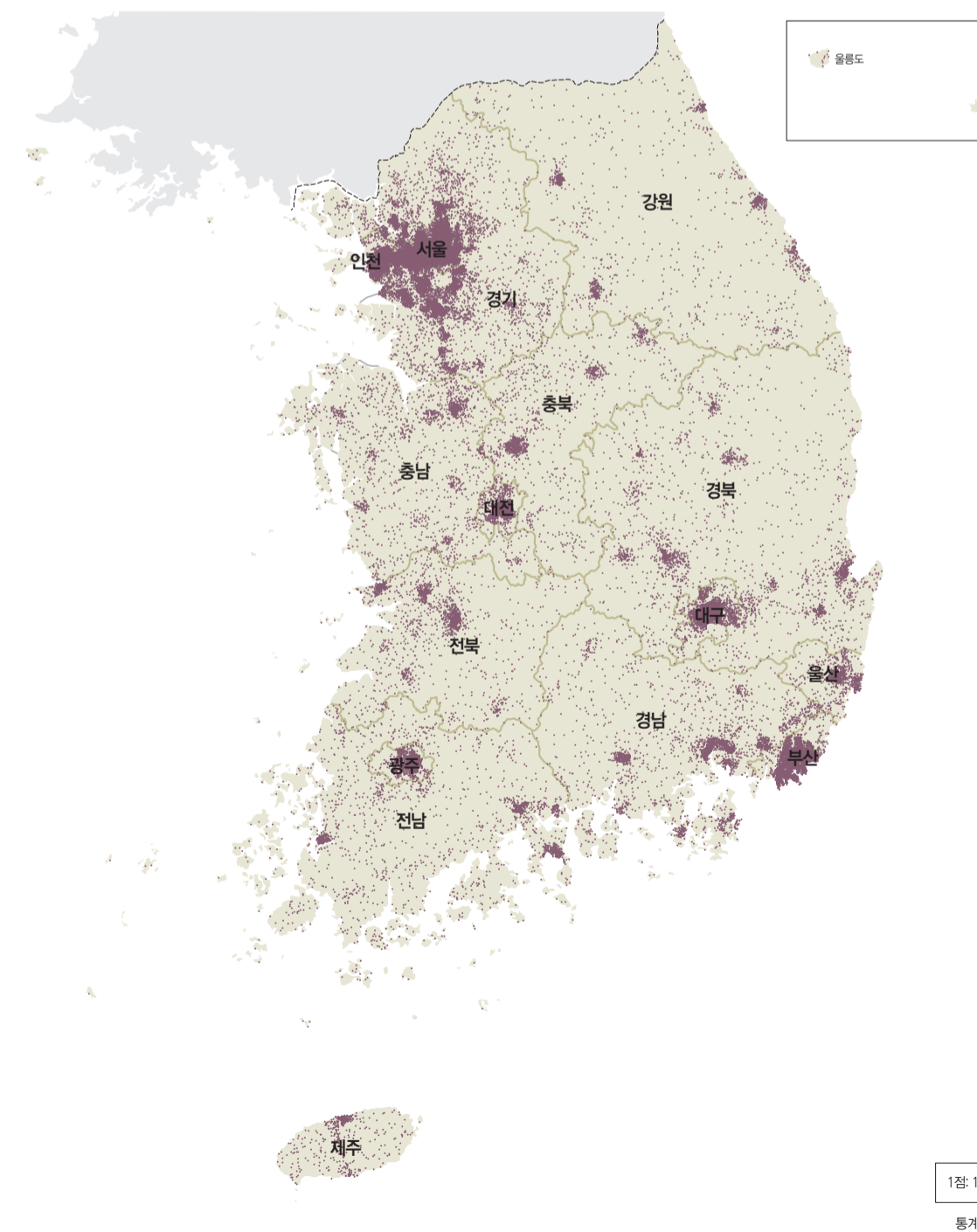
인구 분포
198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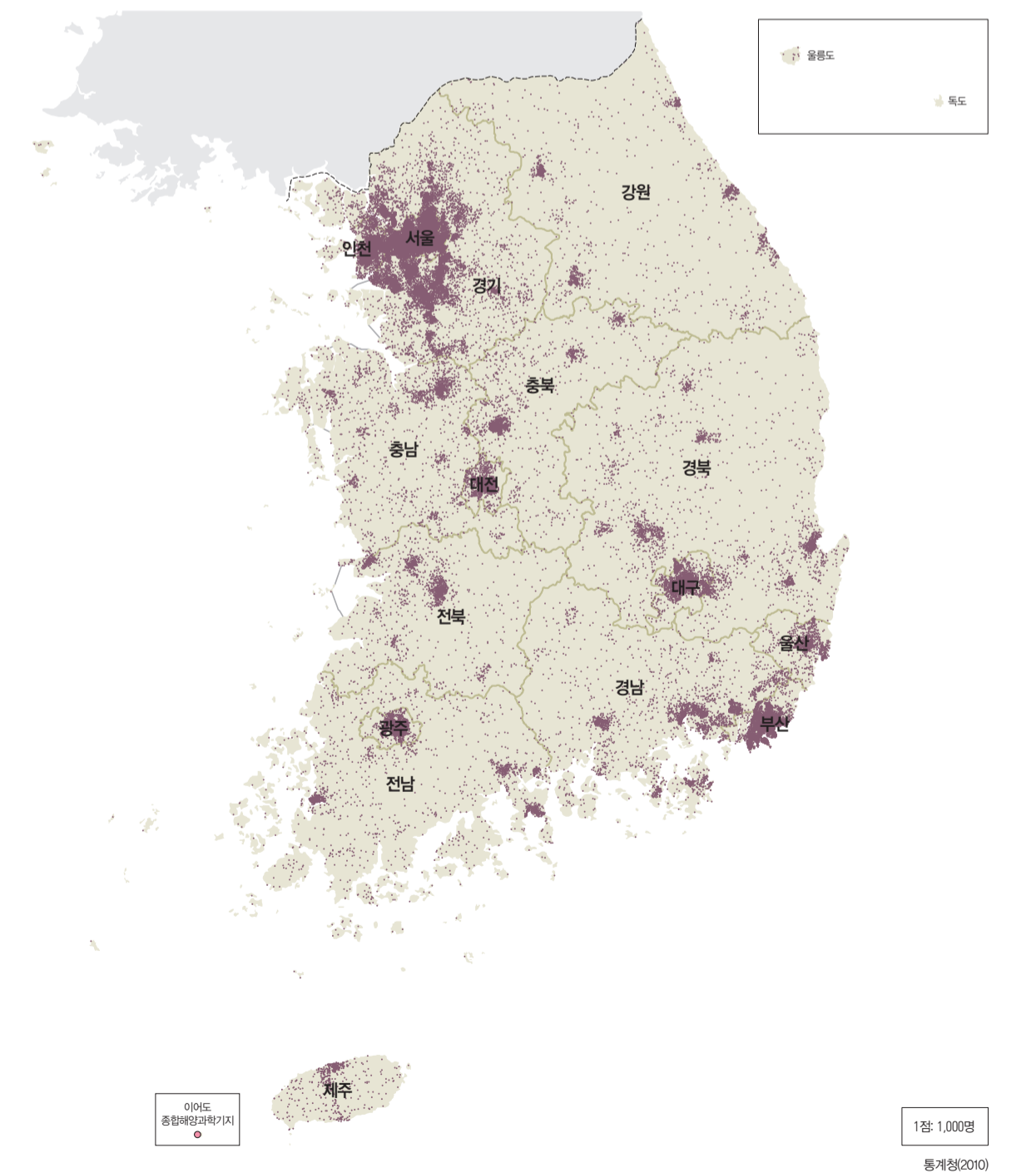
1990년의 인구 분포



200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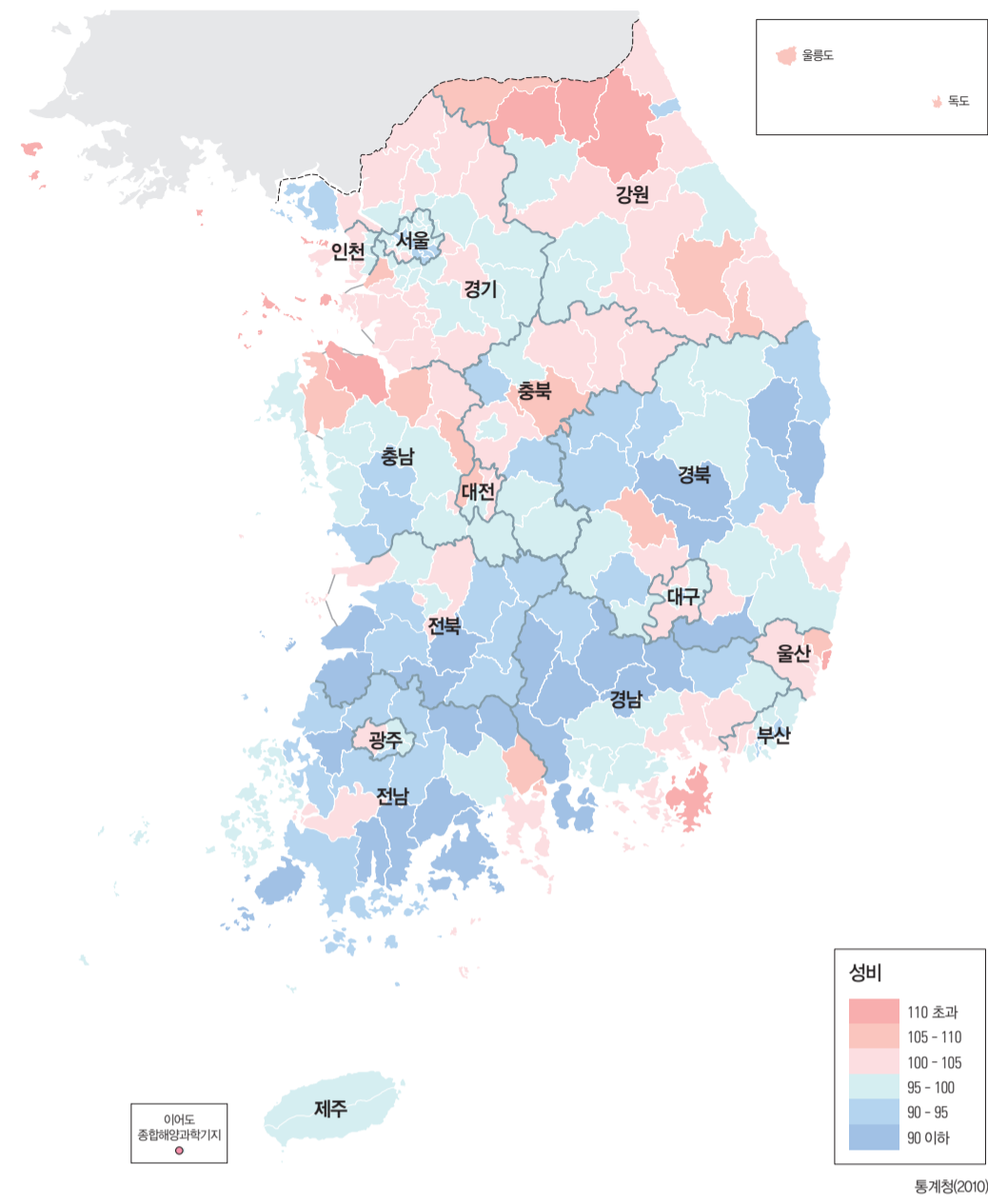


201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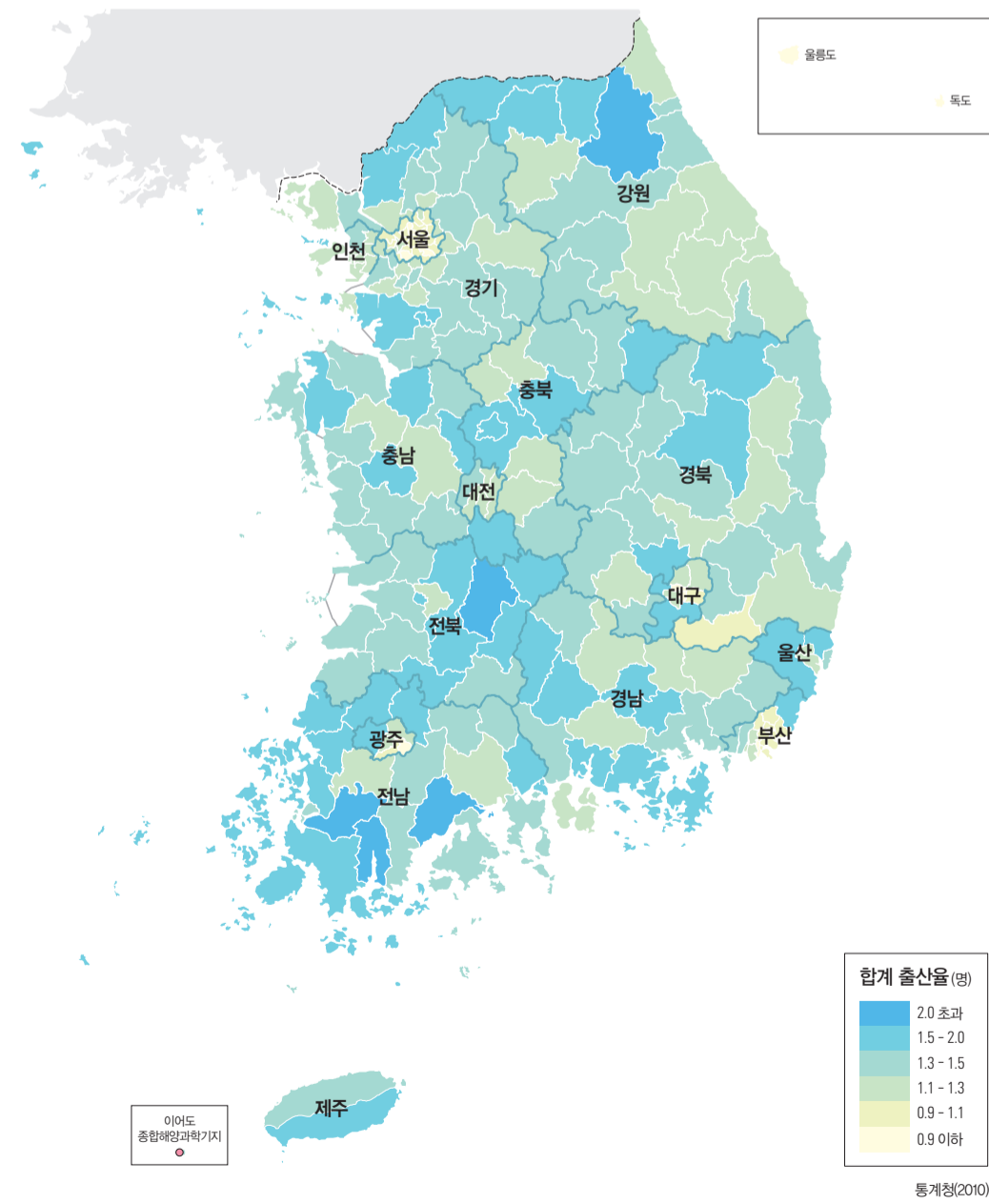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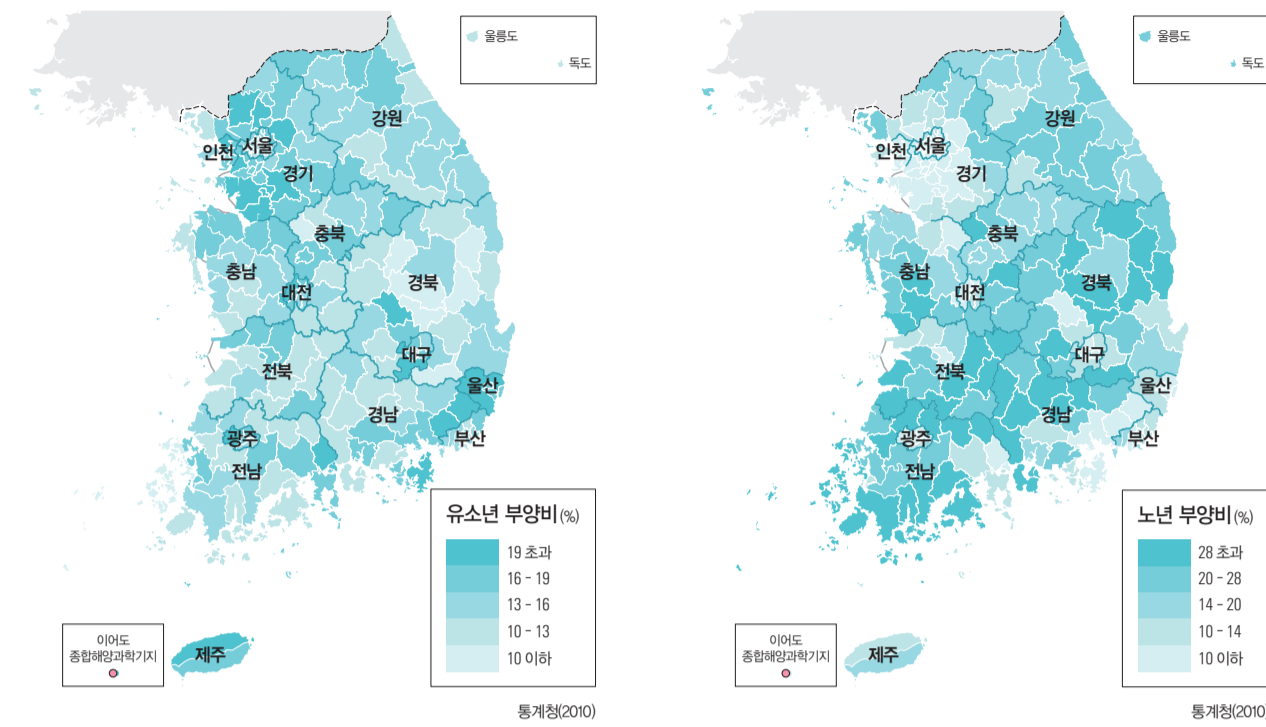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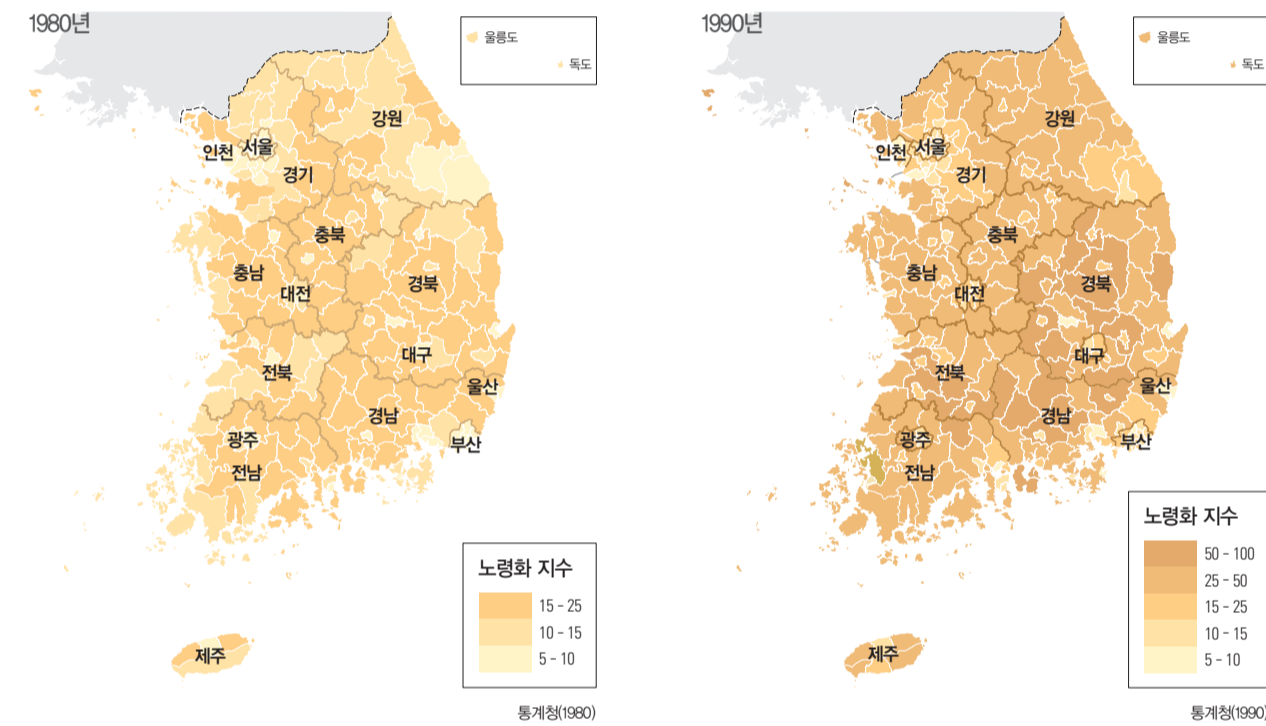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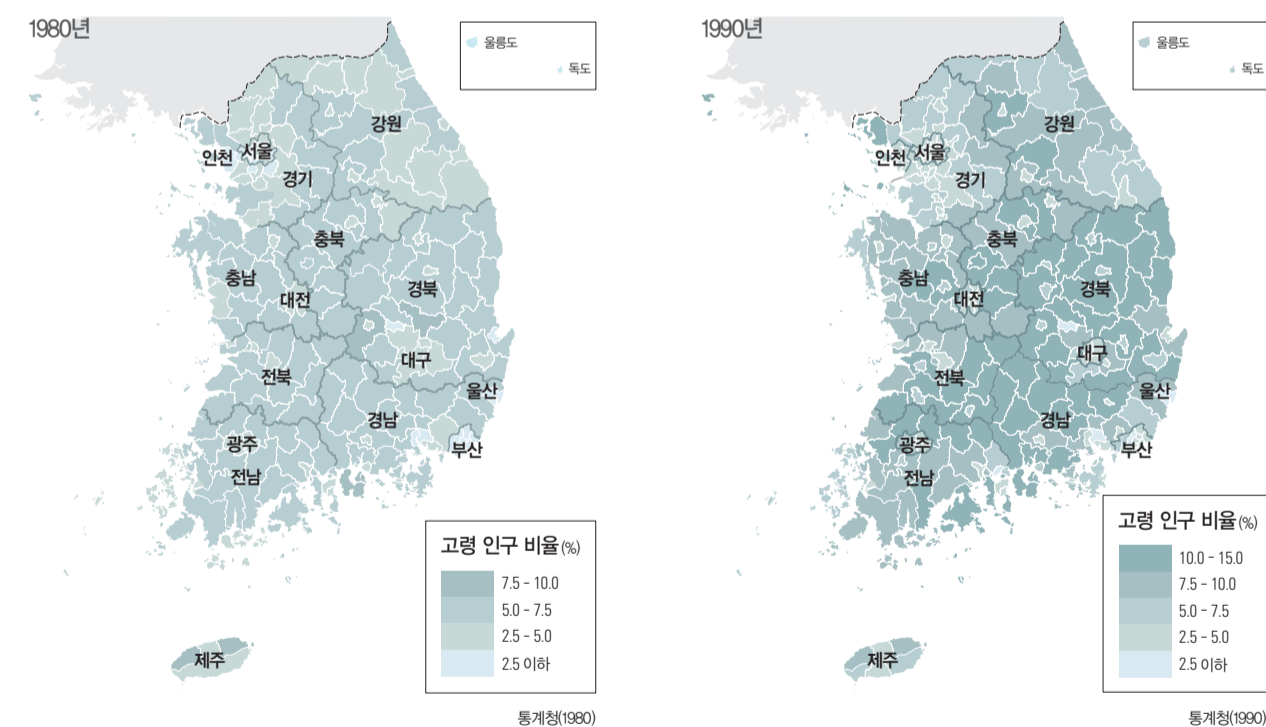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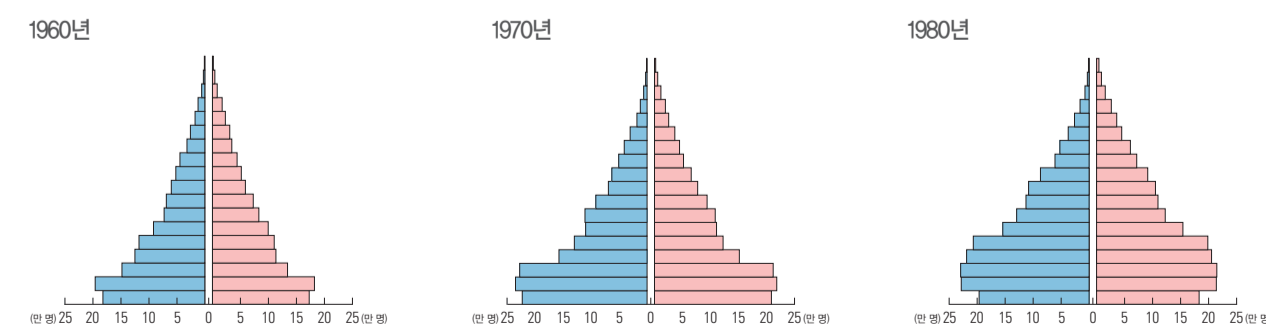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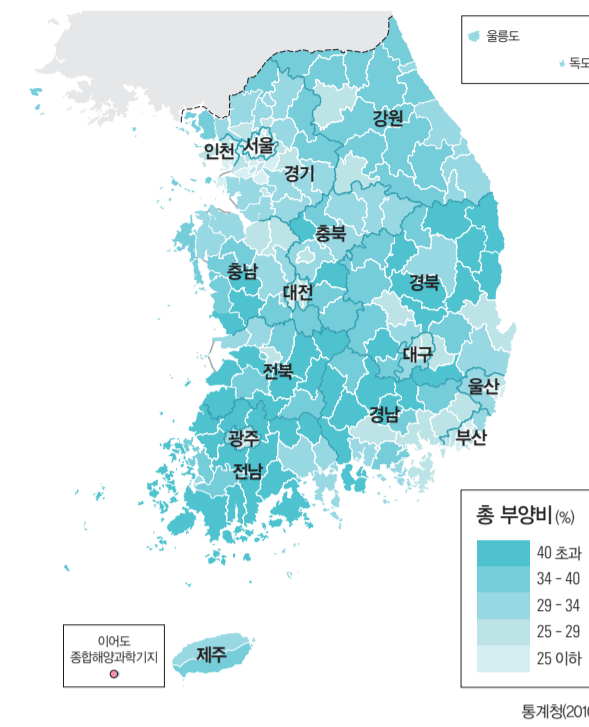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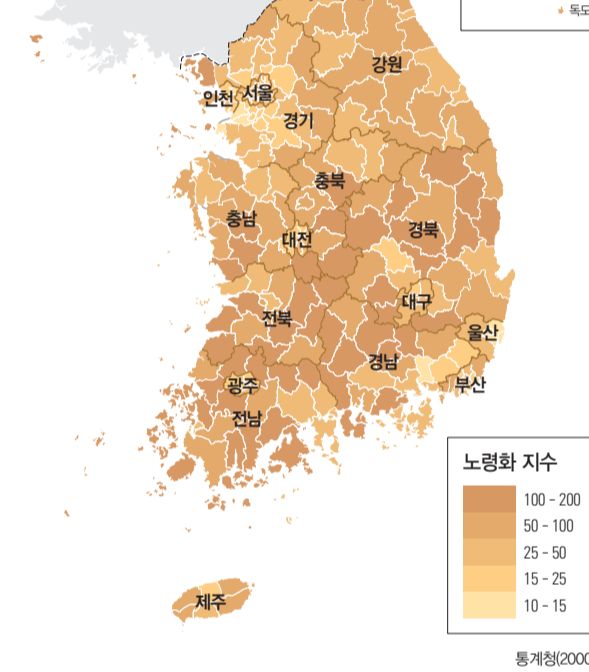
인구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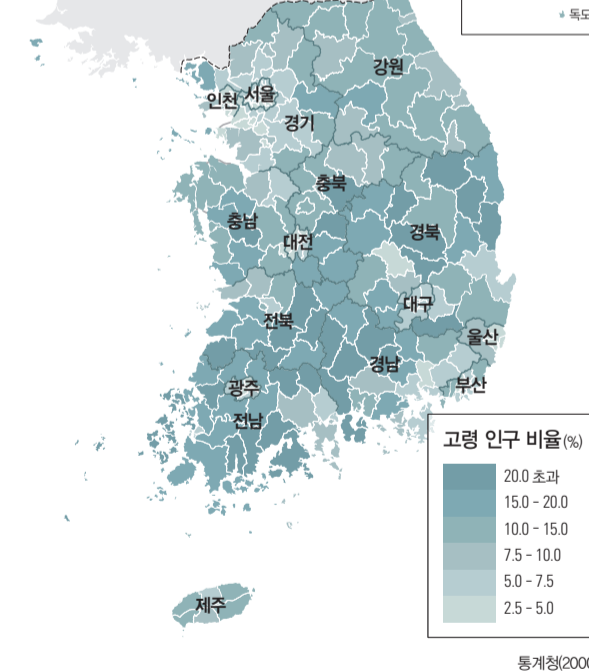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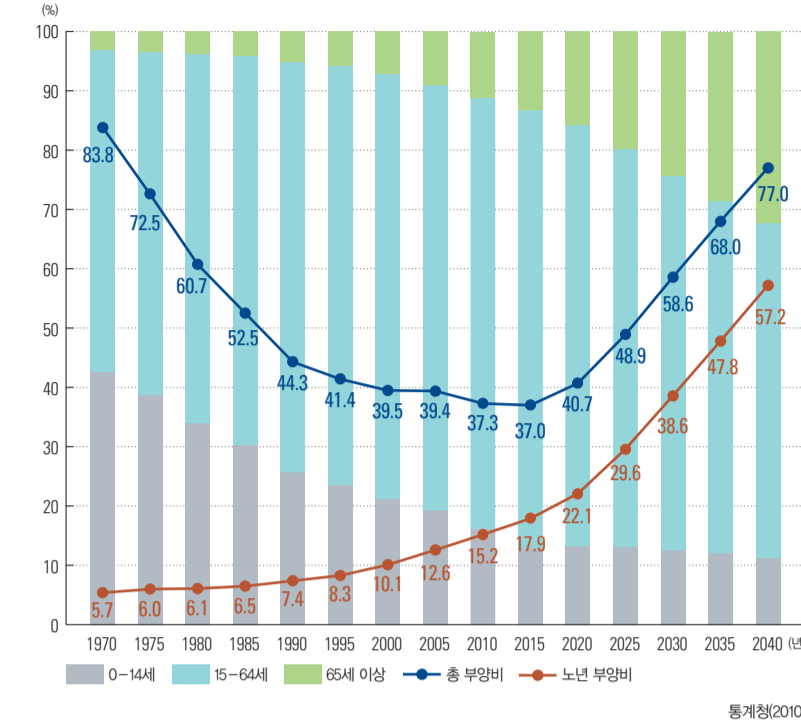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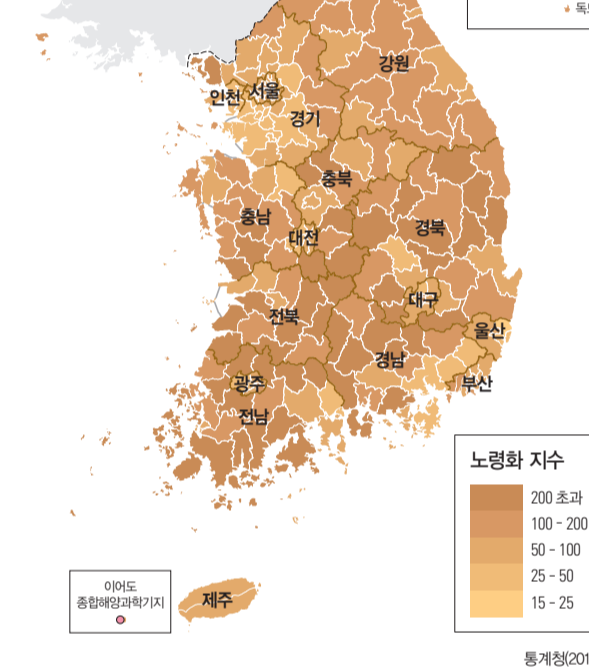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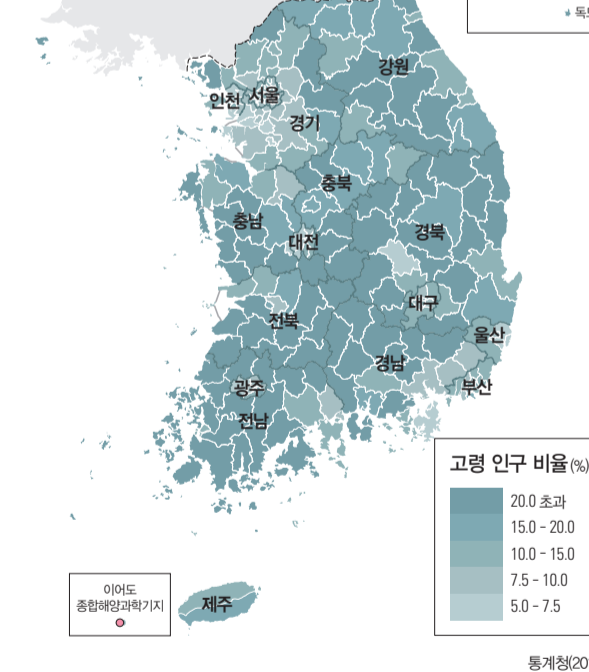
인구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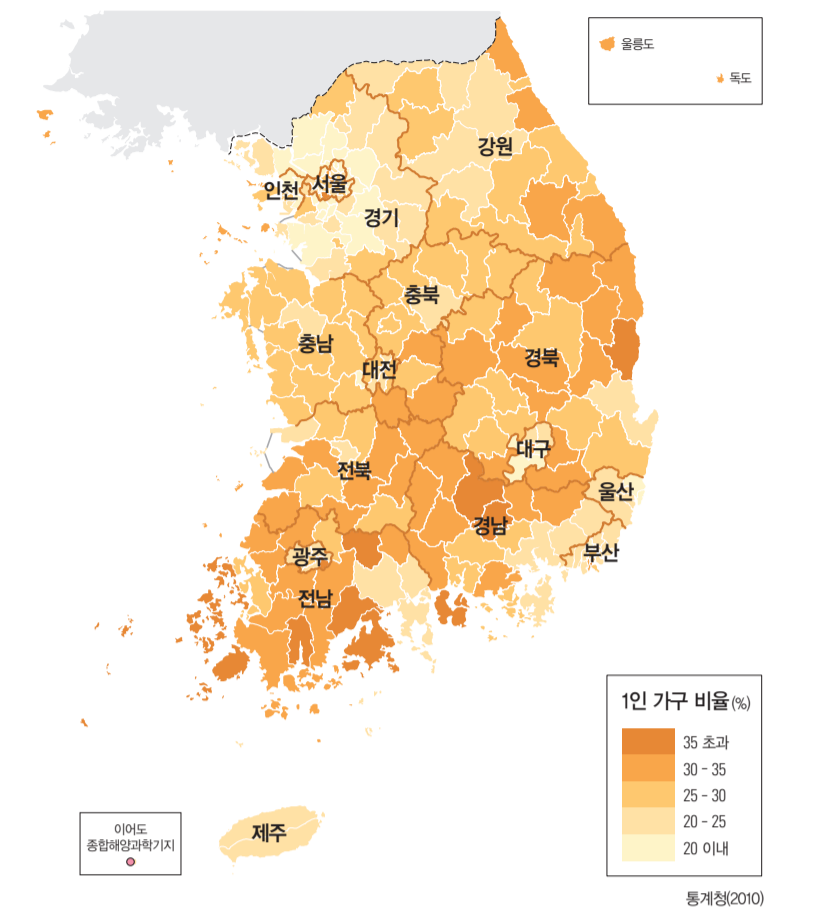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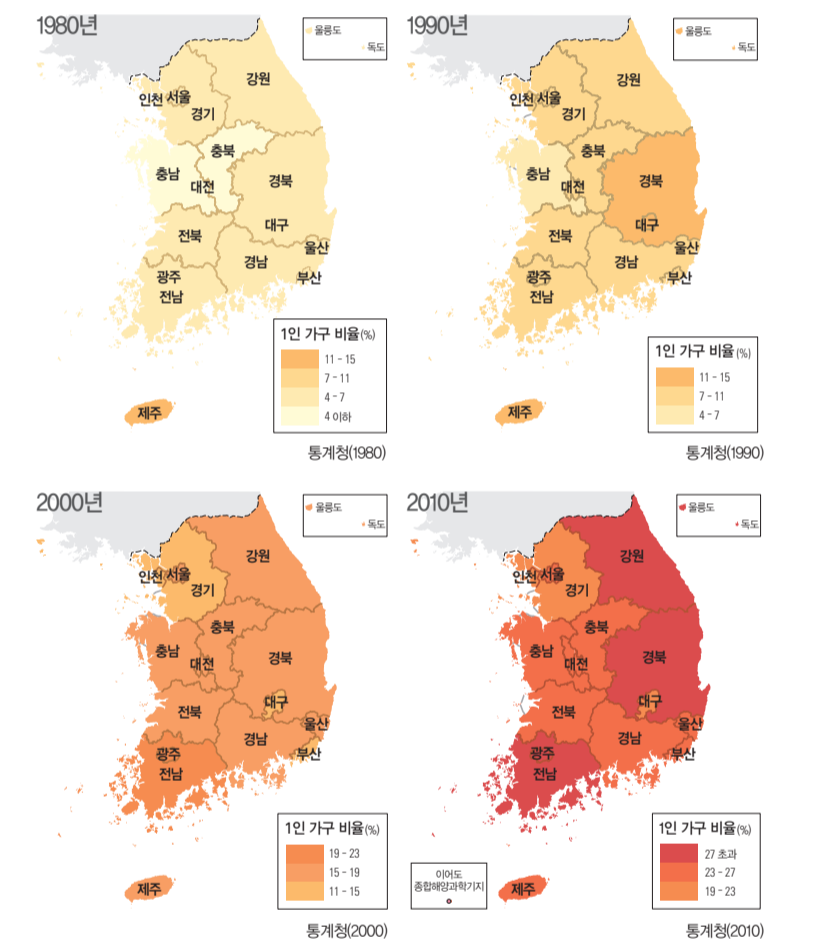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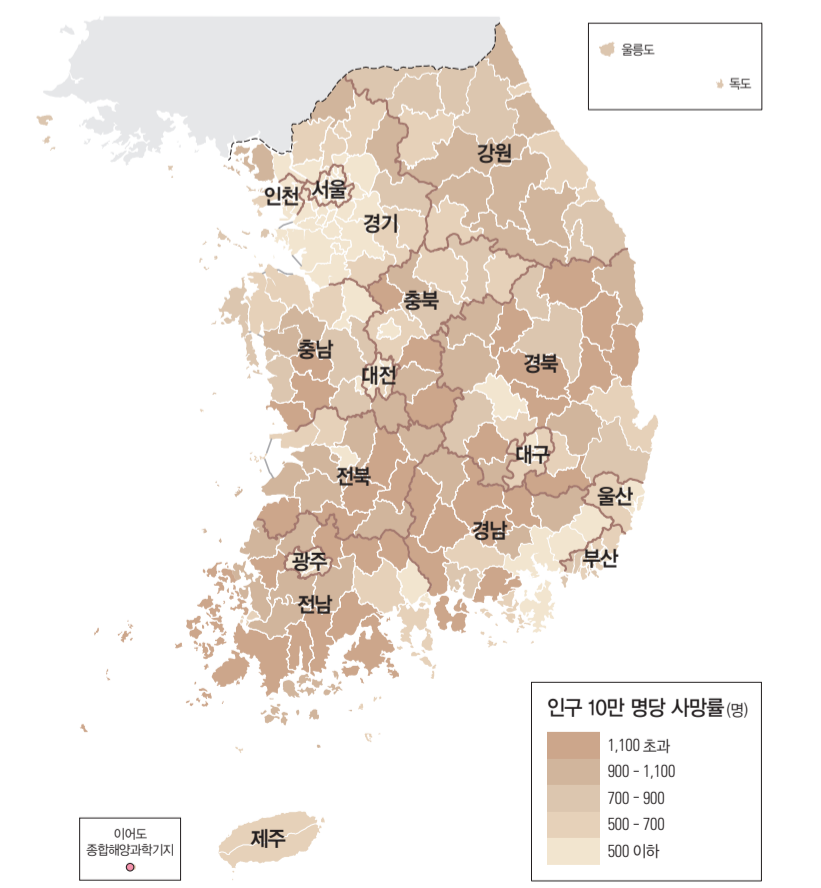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



인구 가구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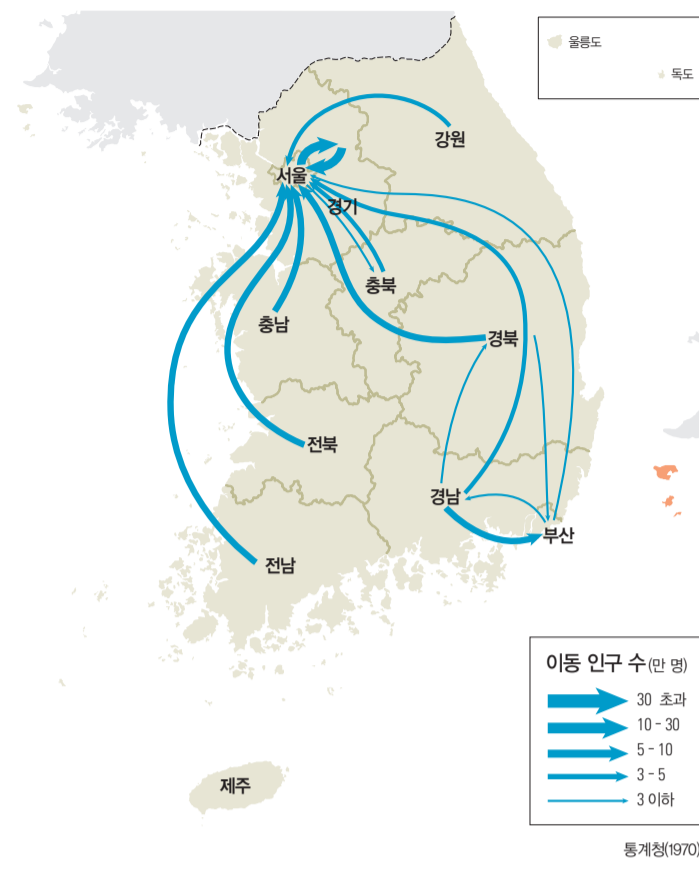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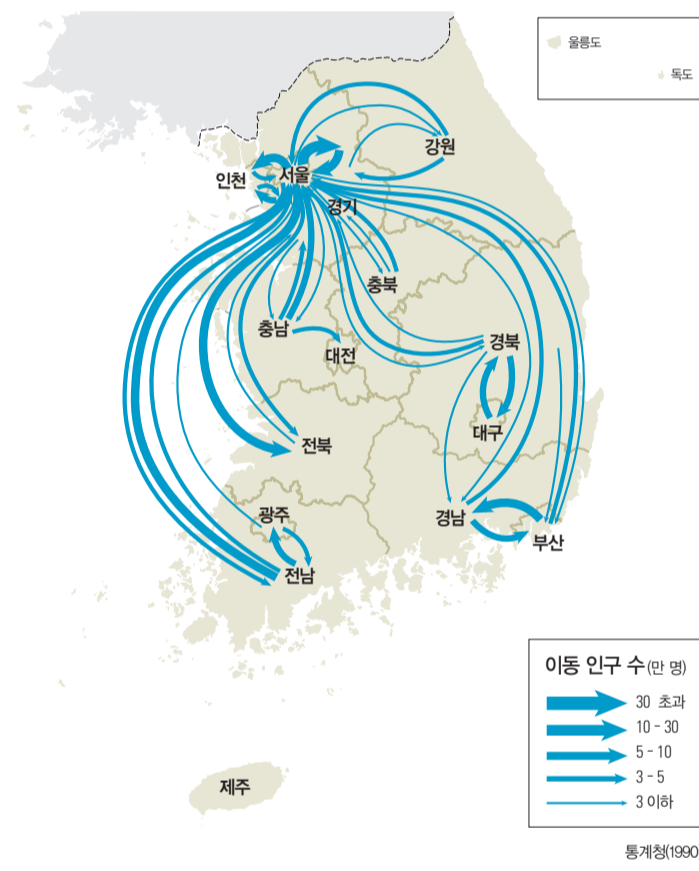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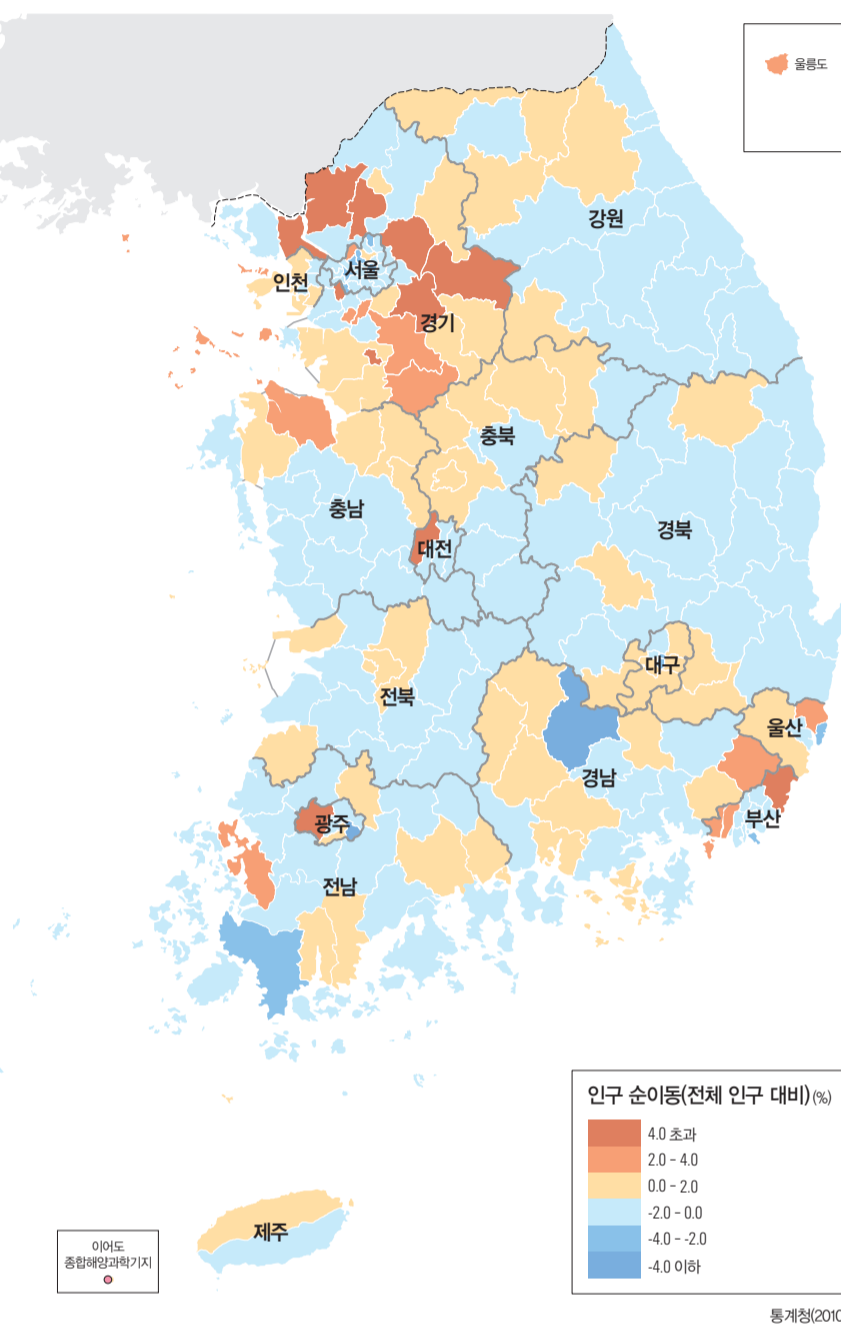
197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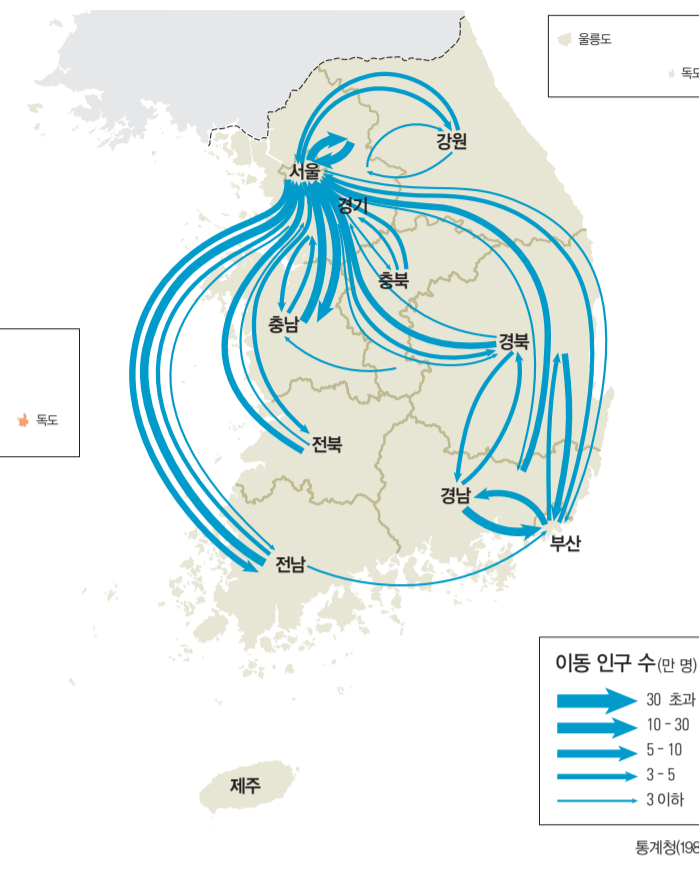
199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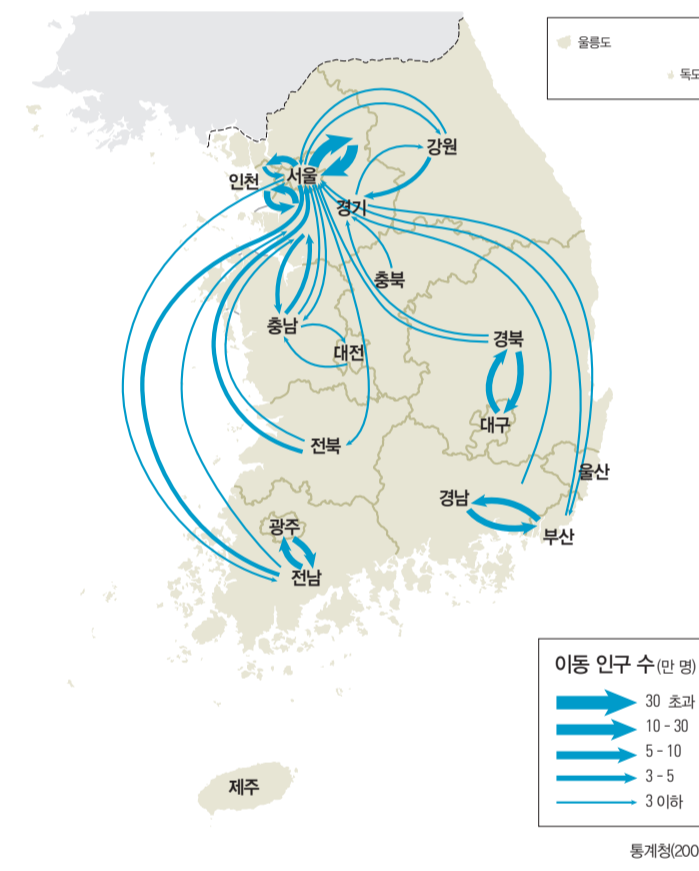
인구 순이동(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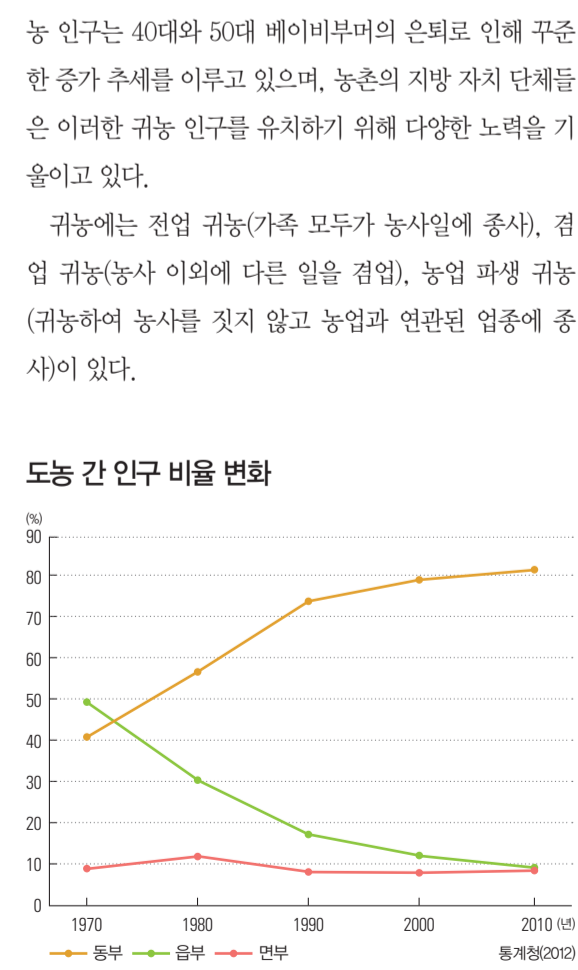
198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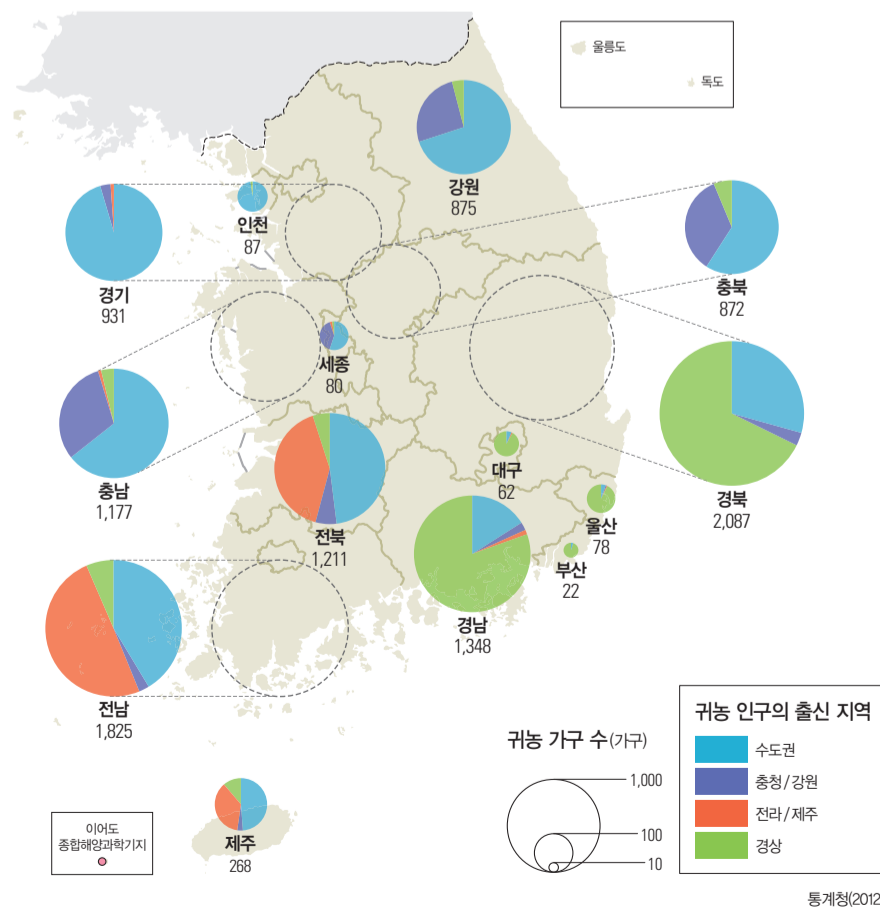
2000년의 인구 이동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인구 이동의 규모를 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후 그 상승세가 1990년에 다소 둔화되었다가 2000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 이는 인구 정주가 1980년대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 이동의 방향, 즉 지역 간 유출과 유입의 분포는 거리, 조락, 도시화, 교외화·역도시화 등의 특징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거리 조락 측면보다는 도시화의 특징이 두드러졌으나, 이후 1990년대부터는 거리 조락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2000년에는 교외화와 역도시화 현상이 국지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인구 정주 안정화 등의 사회적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지역별 인구 이동은 이동의 일반적인 원리인 거리 조락 측면 이외에, 각 지역이 다른 특징 지역들과 갖는 관계의 강도와 방향성도 드러낸다.



시·도별 귀농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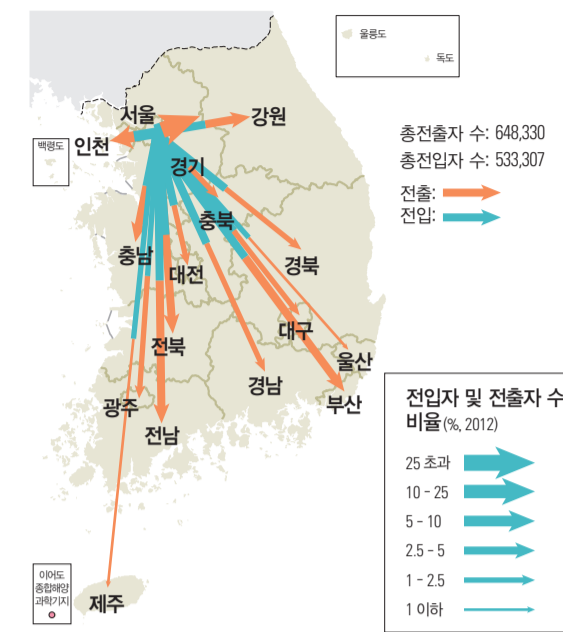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구 이동의 한 유형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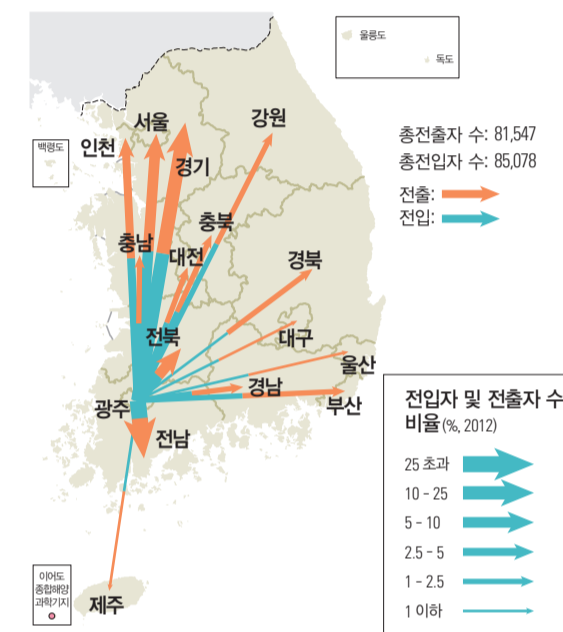
농 인구는 40대와 50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농촌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러한 귀농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에는 전업 귀농(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 겸업 귀농(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업), 농업 파생 귀농(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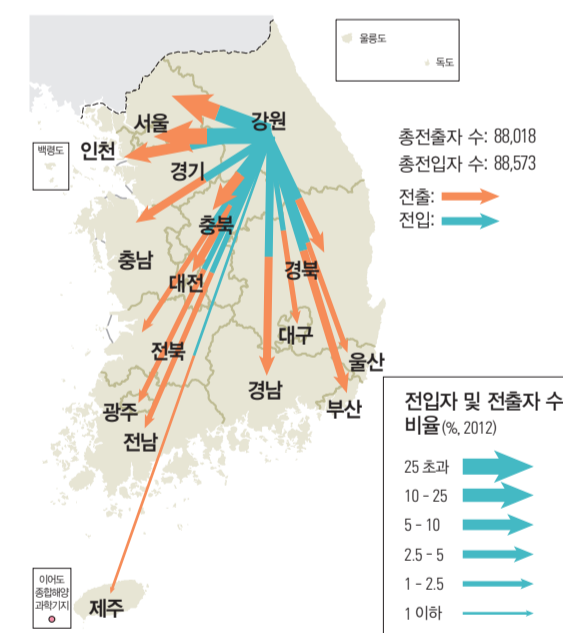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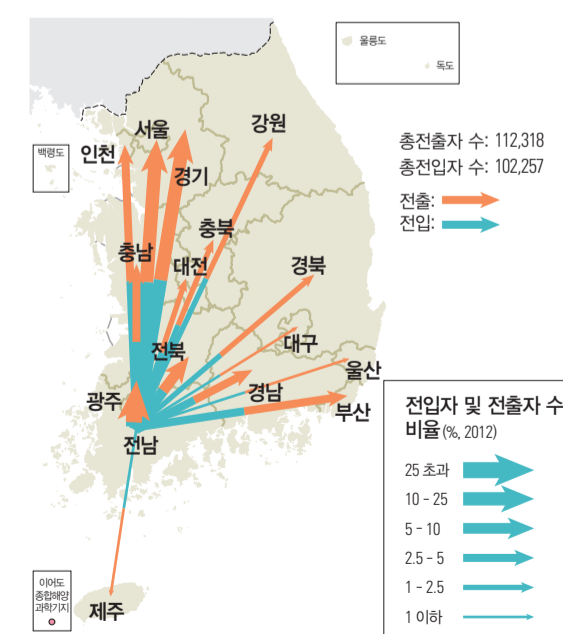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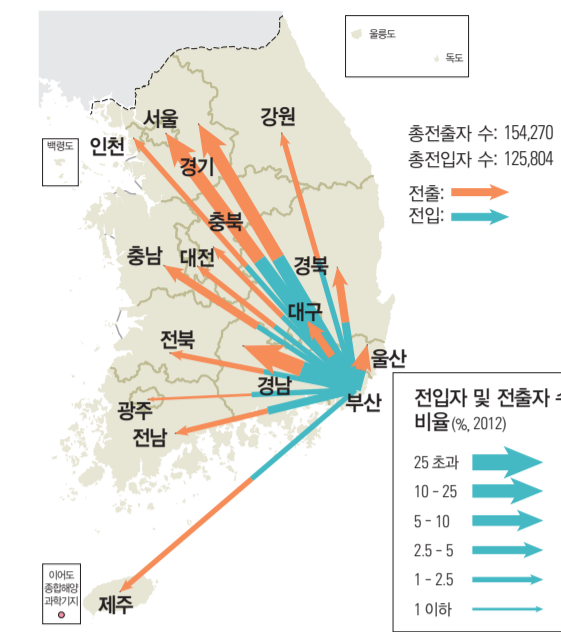
강원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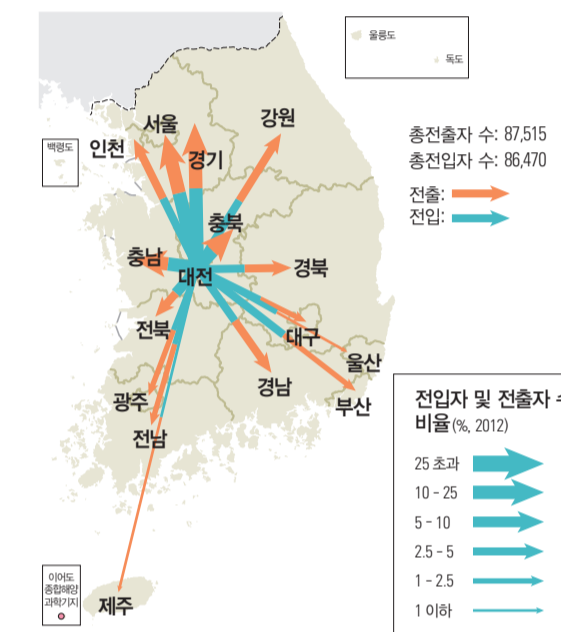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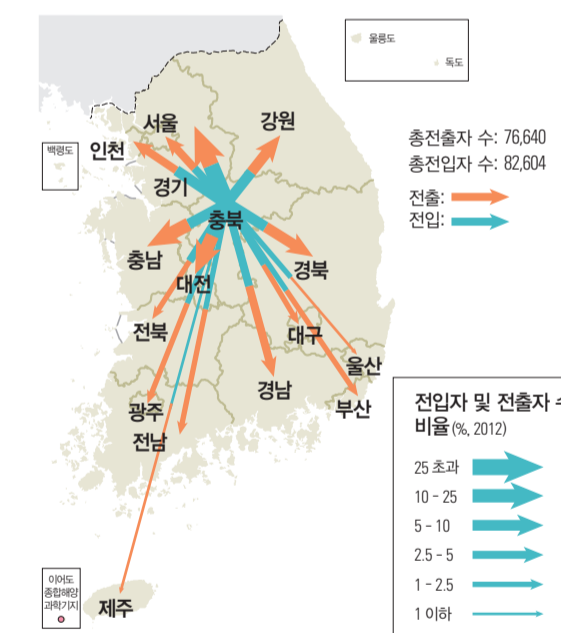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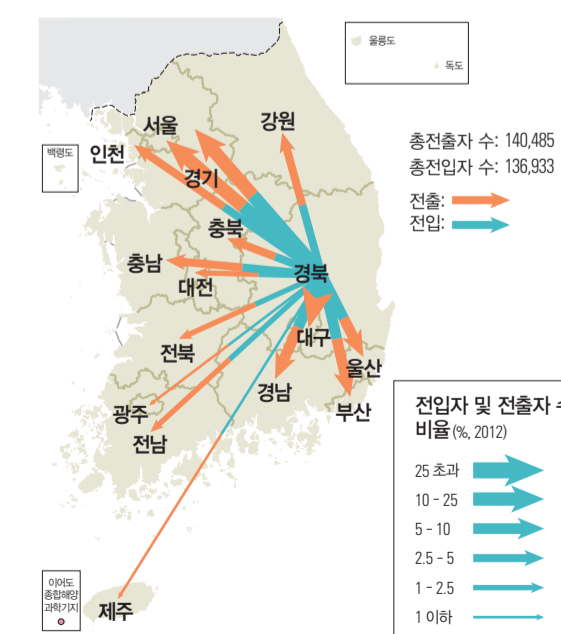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충청북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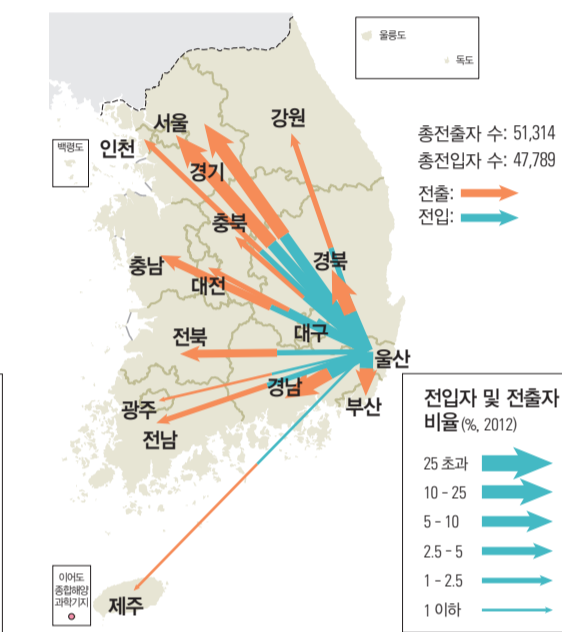
경상북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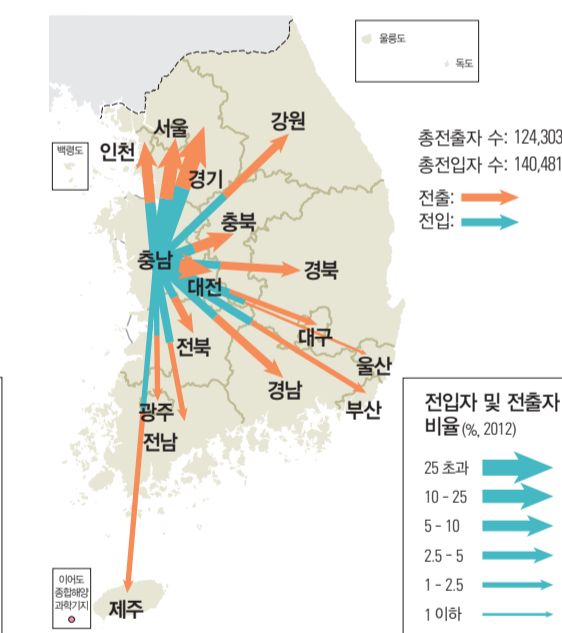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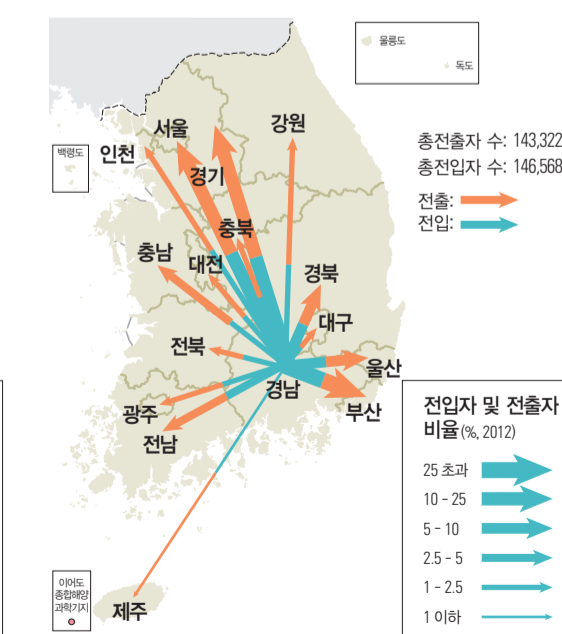
울산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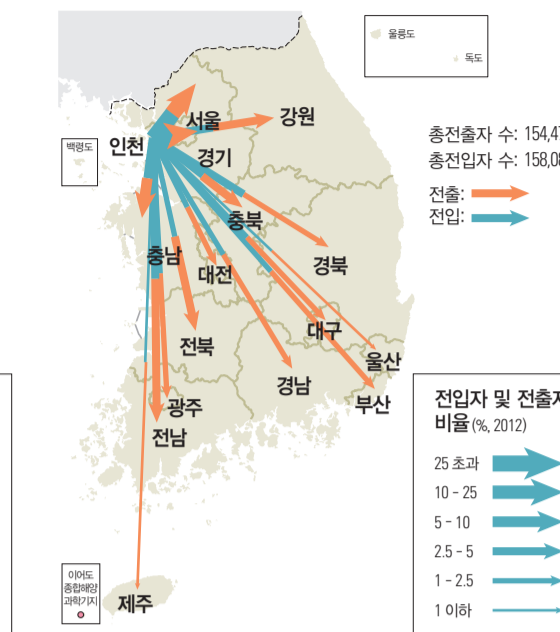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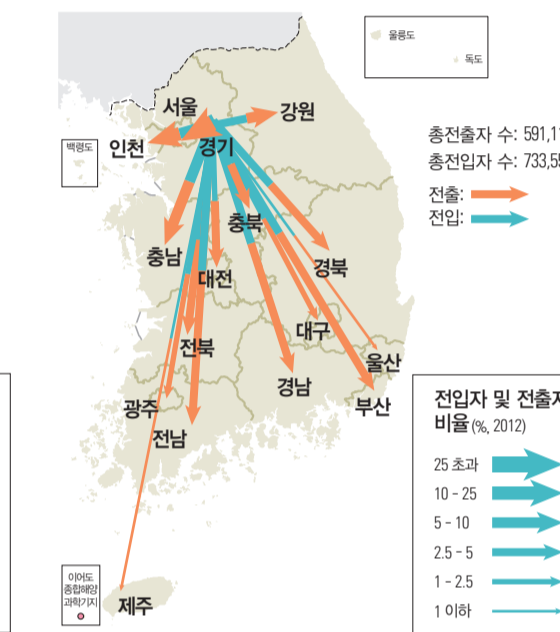
경상남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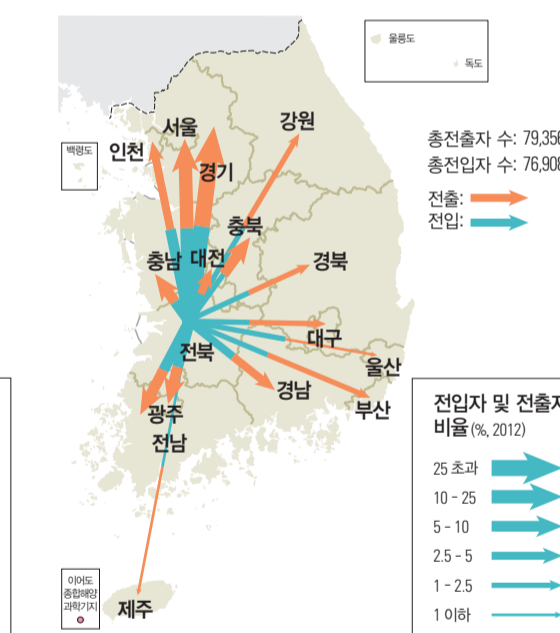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경기도의 전입과 전출



전라북도의 전입과 전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과 전출

